

직장인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요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Retirement Expectation on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

경북대학교 장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강사 배문조*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

Researcher & Lecturer : Bae, Moon-J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licit the multi-dimensions of retirement expectations, and explore sub-factors of retirement expectations which predict the possibility of worker's participation to each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four sub-factors; Imposed frustration, New beginning, Transition to rest, Continuing.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tirement expectation according to sex, age, income, and health status.

Second, the major affecting factors on participation in 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s were sex, age, job, educational attainment, and health status.

Third, those who have retirement expectations of 'Imposed frustration' tend to attend re-employment, leisure, and health education. Those who have retirement expectations of 'Transition to rest' tend to attend re-employment, inauguration education. And those who have retirement of 'Continuing' tend to attend leisure education.

▲주요어(Key Words) : 은퇴기대(retirement expectation), 은퇴준비교육(pre-retirement planning program)

I. 서론

은퇴는 비직업적인 지위로의 변화로써 노화에 직면하게 하고 경제적, 사회적 결핍을 가져오는 것으로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며, 인생의 후기 단계로 들어가는 전환기에 와 있음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는 사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율로 인해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가 되고 있다(통계청, 2005).

이러한 고령화에 따라 서구의 많은 국가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정년제를 폐지하거나 연장해온데 반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에 정년퇴직제도가 도입되어 제도화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고용조정 수단으로서 은퇴가 이용되어 중고령층 임금노동자들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을 장려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2). 결국 현재 우리사회에서 경험하는 은퇴과정은 비합리적이고 비자발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은퇴가 주로 노인과 관련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어 은퇴라는 사건이 이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업 활동 이외의 다른 활동

* 주저자 : 배문조 (E-mail : moonjonim@hanmail.net)

이 일상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에 따른 사회심리적 단절의 문제(최성재, 1989)와 연장된 수명에 맞지 않는 은퇴제도와 잉여시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여가문제(강희성, 2002)와 같은 은퇴기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율의 증가로 인해 은퇴라는 사건은 은퇴를 앞둔 5, 60대뿐만 아니라 취업의 문에 들어선 2, 30대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은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극히 근래의 일로 국내의 은퇴와 관련한 연구들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은퇴예정자 혹은 은퇴자들의 은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김미혜, 1993; 김연옥, 1992; 김향은, 1991; 윤진, 1995; 이승아, 1998; 정선옥, 1995; 호정화, 1998)로, 태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은 태도가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Fretz et al., 1989). 은퇴태도는 연구마다 퇴직태도(이승아, 1998; 이주일, 2003), 은퇴관점(Henretta, 1997), 퇴직의식(김진관, 2002), 퇴직기대(이정의, 2002)라는 용어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지만 은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동소이하며 그 중에서도 은퇴에 대한 태도가 가장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은퇴태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은퇴태도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연구되어 왔고(Antonovsky et al, 1990; Dan, 2004; Gee & Baillie, 1999; Hareven, 1995; Kim, 1992; Staples, 1998), 국내의 연구에서도 긍정적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여 은퇴이후의 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하거나 은퇴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대부분이다(김연옥, 1992; 이승아, 1998; 지연경·조병은, 1991; 최가영 등, 2001; 호정화, 1998). 그러나 은퇴는 문화적 의미와 개인적 의미의 복잡한 네트워크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Hornstein & Wapner, 1985)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이 은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자신의 노화과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은퇴에 대한 생각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Chung, 2004). 그러므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보는 은퇴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은퇴에 대한 생각을 반영해주지 못하므로 여러가지 개인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은퇴기대를 살펴보는 것은 은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Hornstein과 Wapner(1985)는 단일차원에서 보던 은퇴태도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으로 인식하는 은퇴기대로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은퇴에 대한 고정관념화된 관점을 넘어 개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은퇴의 다양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은퇴기대는 이후에 Hanson과 Wapner(1994), Gee와

Baillie(1999)가 다시 재확인하여 네 가지 은퇴기대 양식인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계속이라는 하위요인을 도출했다. 국내의 연구로는 이정의(2002)가 교사를 대상으로 은퇴기대유형을 조사한 결과, 새로운 출발, 경력의 완성, 계속, 휴식, 강요된 좌절이라는 5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은퇴기대를 살펴보는 것은 개인자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조직, 국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해준다(Huebbe, 1999). 즉 개개인의 다양한 은퇴기대와 욕구는 은퇴와 관련된 제도 및 지역사회는 은퇴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생주기상 위기로 인식될 수 있는 은퇴와 은퇴 후 생활로의 전환이 성공적이나 혹은 근심과 불확실성으로 특징지어지는가의 여부는 예기적인 사회화의 정도, 즉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정도에 달려 있다. 많은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은퇴준비와 은퇴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은퇴준비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지만(기영화, 2000; 김미혜, 1993; 차갑부, 1999; 허정무, 1998) 국내의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프로그램의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못하고 하였다(정선옥, 1995). 뿐만 아니라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프로그램이 갖춰야 할 내용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며, 개개인의 은퇴기대에 따라 달라지는 은퇴준비교육요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 학습자의 은퇴에 대한 기대를 살펴보고 각각의 기대에 따른 은퇴준비교육요구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직장인의 은퇴기대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직장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은퇴기대 유형은 은퇴준비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은퇴기대

은퇴에 대한 태도와 기대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은퇴기대를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하는 단일차원에서 보던 관점이었지만 일부 연구에서 은퇴기대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Antonovsky et al., 1990). Hornstein과 Wapner(1985)는 개인들이 은퇴를 경험하는 방식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직업분야별로 선정된 24명을 대상으로 퇴직 전 한 달부터 퇴직 후 여덟 달까지 심층면

접을 하여 노인으로서의 전환, 새로운 출발, 계속, 강요된 좌절의 4가지 은퇴기대 양식을 도출해내고 이를 통해 은퇴기대도구(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4가지의 은퇴기대 양식은 이후에 Hanson과 Wapner(1994), Gee와 Baillie(1999)가 다시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는 Gee와 Baillie(1999)가 Hornstein과 Wapner(1985)의 은퇴기대양식을 수정하여 요인분석한 4가지 차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요된 좌절(imposed disruption)은 은퇴를 직업의 상실로 여기며 직업이란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에 은퇴는 무의미하고 좌절감을 주는 것이라고 본다. 은퇴를 강요된 좌절로 여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에 많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로 은퇴를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본다. 2) 새로운 출발(new beginning)은 은퇴를 새로운 생활의 출발점으로 본다. 즉 은퇴는 오래 기다려온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시기이며 자기 자신의 욕구와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구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간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3) 휴식으로의 전환(transition to rest)은 은퇴를 인생의 휴식으로 여기며 조용한 삶으로 천천히 들어가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본다. 4) 계속(continuity)은 은퇴를 중요한 사건이나 결정적 변화가 없는 시기로 본다. 즉 보다 가치 있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삶의 기본 패턴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이 4가지 차원의 은퇴기대를 살펴본 Hornstein과 Wapner(1985)의 연구는 최근에 은퇴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Gee와 Baillie(1999)의 연구는 은퇴 이전인 중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의 문에 들어선 20대부터 50대 이후까지 다양한 연령의 남녀를 대상으로 은퇴기대를 살펴보고 각각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은퇴준비교육

성인에게 은퇴란 단순히 직업을 상실하는 것 이상의 의미, 즉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및 사회활동의 범위가 크게 변화함을 의미한다. 특히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정년퇴직 이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이 시기를 어떻게 의미있게 보내는가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허정무, 1993).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준비와 은퇴준비교육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는데 학문적 관심은 주로 노년학과 성인교육학 분야에서 나왔다(Walker, 1996). 예비적 사회화로서 아동청소년의 교육이 중요하듯이 은퇴 이

후를 위한 교육 역시 중요하다. 은퇴는 수입의 감소나 역할의 상실 이상의 삶의 의미와 목표의 상실, 삶의 방식의 혼란을 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노후와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예비적 불안은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의 직업과 삶에도 만족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때 은퇴에 앞서 노년에 올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의 특성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러한 변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년 이전 현재의 직업이나 삶에도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평생교육적 노력의 하나가 은퇴준비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한정란, 2001).

은퇴준비교육은 교육을 통해 노후생활을 이해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삶의 보람을 재발견하고, 급속한 사회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며, 연령에 의한 노소의 가치, 문화적 갈등을 좁히며, 자신의 노년을 서서히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은 개인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추구하는 방향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단체가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앞서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파악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강희성, 2002).

대부분의 은퇴준비교육 내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어떠한 유형의 은퇴준비교육이 필요한지를 언급하면서 은퇴준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특히 경제적인 것과 시간 사용에 초점을 두는데(Dan, 2004; Ferraro & Su, 1999) 직업을 그만둘 때는 많은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은퇴준비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Glass & Conrad, 1998; Martin, 1997)이고 다른 하나는 비재정적 부분의 준비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Morud, 1990)이다. Brady 등(1996)는 뉴잉글랜드 주에 있는 245개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은퇴준비교육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결과, 은퇴전 교육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응답된 영역은 은퇴에 따른 이득, 건강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 생명보험, 재무투자, 시간제 또는 전일제 직업안내, 부동산 계획, 법률적 문제, 지역사회문제, 장기적인 구호보장제도, 신체적 건강, 은퇴후 시간활용, 자원봉사자 활동, 죽음과 사별, 가족 간 적응문제 순으로 나타나 재정적인 측면과 비재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나누어 연구하기 보다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강희성(2002)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정, 건강관리, 경제적설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교육에 대한 욕구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경제적 설계관련교육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이 건강, 여가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경희(1995)는 퇴직전 준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건강, 취미, 인간관계, 재취업, 사회활동의 다섯 가지로 이루어졌고, 김경신(1996)은 은퇴를 부분적으로 포함한 노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최보아와 지영숙(2004)은 생활설계기초에 대한 내용, 건강, 가족관계, 긍정적 노년상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은퇴에 대한 태도나 기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며, 이정희(2002)역시 교사를 대상으로 다섯 가지 은퇴기대에 따른 은퇴준비교육 욕구를 파악한 결과, 연령보다는 은퇴기대의 하위요인들이 은퇴준비교육 참여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라는 특정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의 욕구를 파악하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들의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은퇴기대

은퇴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Hornstein과 Wapner(1985)의 은퇴기대도구(Retirement Expectation Inventory)를 Gee와 Baillie가 재구성한 것을 본 연구자가 수정·변안하여 이용하였다. 은퇴기대를 요인분석한 결과 4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강요된 좌절로 총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좌절의 시기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요인은 새로운 출발로 총 7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 요인은 휴식으로의 전환으로 총 5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쉬면서 노화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 요인은 계속으로 총 3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를 삶이 계속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각각 .92, .79, .77, .59였다.

2)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내용

은퇴준비교육 참여 요구를 측정하기 위해 김신일 등(199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은퇴준비교육의 내용은 재취업, 창

업, 여가 및 취미활동 관련교육, 건강관리교육, 재정관리교육, 상담분야교육, 전원생활준비교육으로 구성되었다.

3)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월소득, 직업, 건강상태를 하위요인으로 하고 본 연구자가 구성한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2. 자료수집

본 조사는 2005년 8월 4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구·경북지역의 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직장인을 대상으로 580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총 524부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된 질문지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사용된 자료는 총 515부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for Win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및 백분율을,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Duncan 사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63.3%로 여성보다 많으며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67%로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았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도 20, 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따라서 건강상태도 보통이상인 사람들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앞서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검토하였다(<표 2>참고). 프로그램별 참여 의사 경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의사보다 비참여의사가 높은 프로그램은 상담관련 프로그램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은퇴준비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반영하며, 상담관련 교육에의 참여빈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상담관련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구분	빈도 (%)	배경변인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326(63.3)	건강상태	나쁨	20(3.9)
	여성	189(36.7)		보통	242(47.0)
연령	20대	143(27.8)		건강함	253(49.1)
	30대	253(49.1)	직업	전문관리직	109(21.2)
	40대	92(18.4)		사무직	321(62.3)
	50대 이상	27(4.7)		생산판매직	85(16.5)
월소득	100만원 이하	17(3.3)	교육수준	고졸이하	89(17.3)
	101~200만원	183(35.5)		전문대학졸업	79(15.4)
	201~300만원	164(31.8)		4년제 대학 졸업	290(56.3)
	301~400만원	93(18.1)		대학원 이상	57(11.0)
	400만원 이상	58(11.3)	전체	515(100)	

<표 2> 직장인의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 참여의사

은퇴준비교육내용	참여(%)	비참여(%)
재취업교육	333(64.7)	182(35.3)
창업준비교육	370(71.8)	145(28.2)
여가 및 취미관련 교육	440(85.4)	75(14.6)
건강관리 교육	431(83.7)	84(16.3)
재정관리교육	416(80.8)	99(19.2)
상담관련 교육	246(47.8)	269(52.2)
전원생활준비교육	341(66.2)	174(33.8)

2. 직장인의 은퇴기대유형

직장인의 은퇴기대유형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은퇴기대에서는 휴식으로의 전환에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휴식으로의 전환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정희(2002)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여성은 직업역할과 가정내의 역할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은퇴를 통해 역할긴장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에서는 계속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 30대보다는 40대이상의 사람일수록 은퇴기 이후에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전과 같은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과 교육수준에서는 은퇴기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정규직이고, 교육수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소득에 따라서는 강요된 좌절에 있어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300만원 이하인 사람들보다 은퇴를 강요된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월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소득과 더불어 만족감을 주는 그러한 직업에 보다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하며 은퇴라는 사건이 이러한 높은 소득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좌절을 안겨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후의 연구에서는 은퇴기에 중요한 자원인 경제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총자산도 함께 조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된다.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이 은퇴기를 계속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은퇴와 관계 없이 은퇴전에 해온 활동들을 은퇴 이후에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Kim(1992)은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은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은 삶에 대한 자세가 유

<표 3> 직장인의 은퇴기대의 유형

구 분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휴식으로의 전환		계 속		
	M(SD)	F	M(SD)	F	M(SD)	F	M(SD)	F	
성 별	남	2.45(.77)	.87	3.52(.62)	2.29	2.24(.85)	7.22**	2.81(.74)	.73
	여	2.51(.71)		3.60(.56)		2.43(.64)		2.75(.75)	
연 령	20대	2.51(.69)	.47	3.55(.56)	.61	2.44(.66)	2.69	2.65(.70)a	6.71***
	30대	2.45(.76)		3.58(.61)		2.25(.80)		2.77(.74)a	
	40대 이상	2.51(.77)		3.50(.63)		2.27(.86)		2.98(.77)b	
직업	전문관리직	2.36(.76)	1.80	3.58(.65)	.83	2.23(.84)	.68	2.89(.78)	1.88
	사무직	2.51(.73)		3.56(.57)		2.33(.75)		2.74(.73)	
	생산판매직	2.51(.76)		3.48(.67)		2.30(.82)		2.82(.75)	
교육 수준	대졸미만	2.46(.73)	.649	3.54(.62)	1.73	2.32(.71)	.80	2.75(.73)	1.99
	4년대졸업	2.50(.74)		3.53(.57)		2.28(.79)		2.77(.74)	
	대학원이상	2.38(.80)		3.69(.68)		2.41(.90)		2.97(.81)	
소득	200만 미만	2.43(.73)a	4.42*	3.56(.63)	.100	2.33(.75)	.28	2.71(.74)	1.97
	200~300만원	2.40(.74)a		3.56(.62)		2.27(.75)		2.80(.75)	
	300만이상	2.63(.75)b		3.53(.54)		2.32(.86)		2.87(.75)	
건강 상태	나쁨	2.63(.99)	1.13	3.48(.66)	2.39	2.58(.86)	2.06	2.60(.90)a	7.57***
	보통	2.51(.72)		3.50(.62)		2.34(.76)		2.67(.70)ab	
	좋음	2.43(.74)		3.61(.58)		2.25(.79)		2.79(.75)b	

*P<.05, **P<.01, ***P<.001

<표 4> 독립변인들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1.00									
2. 교육수준	.26*	1.00								
3. 건강상태	.12*	.14*	1.00							
4. 연령	.29*	-.07	-.03	1.00						
5. 사무직	-.16*	-.11*	.01	-.29*	1.00					
6. 생산판매직	.11*	-.20*	-.05	.15*	-.57*	1.00				
7. 강요된좌절	-.04	-.02	-.09*	.03	.05	.02	1.00			
8. 새로운출발	-.06	.05	.09*	-.04	.02	-.05	-.47*	1.00		
9. 휴식으로전환	-.11*	-.01	-.07	-.08*	.04	-.00	.35*	-.24*	1.00	
10.계속	-.03	.08	.15*	.18*	-.08	.02	-.12*	.16*	.05	1.00

*P<.05

연하고 은퇴이후의 생활을 즐기려는 욕구가 강해 은퇴에 대해 보다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3. 직장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은퇴기대가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참여에 미치는 영향

직장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프

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 확인을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4> 참조), 상관계수가 .57 이하로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다음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한 은퇴기대의 영향력을 보기위해 위계적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학적 특성 중 재취업 준비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생산판매직으로

<표 5> 재취업준비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 별 ¹⁾	.197	.227	1.218	.256	.235	1.291	
연 령	.010	.015	1.010	.007	.016	1.007	
인구학적 특성	교육기간	-.102	.060	.903	-.102	.061	.903
직 업 ²⁾	사무직	.343	.247	1.409	.293	.258	1.340
	생산판매직	1.224***	.366	3.400	1.243***	.379	3.466
소 득	-.086	.099	.917	-.126	.103	.882	
건강상태	-.105	.144	.901	-.090	.151	.914	
은퇴기대	강요된 좌절			.611***	.164	1.841	
	새로운 출발			-.023	.192	.978	
	휴식으로의 전환			-.621***	.141	.537	
	계 속			-.024	.139	.976	
상수	1.783	1.419	5.948	2.041	.1659	7.698	
-2Log우도		640.599			611.553		

*P<.05, **P<.01 ***P<.001, 기준변수: ¹⁾ 남 ²⁾ 전문관리직

<표 6> 창업준비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 별 ¹⁾	-.735***	.240	.480	-.707**	.248	.493	
연 령	-.038*	.016	.963	-.039*	.016	.962	
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	-.171**	.065	.843	-.164*	.066	.849
직 업 ²⁾	사무직	.845***	.261	2.328	.930***	.272	2.535
	생산판매직	.949**	.361	2.584	1.063**	.375	2.896
소 득	.146	.109	1.157	.159	.111	1.172	
건강상태	.025	.156	1.025	-.002	.163	.998	
은퇴기대	강요된 좌절			.228	.171	1.256	
	새로운 출발			.357	.202	1.428	
	휴식으로의 전환			-.632***	.148	.532	
	계 속			-.207	.151	.813	
상수	4.706**	1.528	110.564	4.838	1.762	126.229	
-2Log우도		571.911			544.266		

*P<.05, **P<.01, ***P<.001, 기준변수: ¹⁾ 남 ²⁾ 전문관리직

나타났다. 즉 생산판매직이 전문관리직보다 재취업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술직에 비해 관리직에 종사하는 직장인이 노후재취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5.2배 높다는 백해정(2000)의 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또한 은퇴기대를 첨가한 모형2에서는 강요된 좌절과 휴식으로의 전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강요된 좌절이 높을수록 재취업교육 참여가능성이 높으며, 휴식으로의 전환이 높을수록 재취업교육 참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기대에서 강요된 좌절이 높을수록 재취업교육 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강요된 좌절이 높은 사람들은 비자발적 퇴직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취업은 직업을 통한 정체감획득과 상실감 극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시 재취업을 하기위한 교육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휴식으로의 전환이 높은 사람들은 은퇴는 곧 휴식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취업교육에 참여하기보다는 쉬면서 노년의 생활을 정리하는

<표 7> 여가 및 취미관련 준비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 별 ¹⁾	.466	.322	1.594	.483	.341	1.621	
연 령	.035	.022	1.035	.029	.023	1.030	
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	-.039	.079	.961	-.054	.082	.948
	사무직	-.449	.368	.638	-.411	.377	.663
	생산판매직	-.542	.463	.582	-.570	.476	.566
	소 득	-.178	.130	.837	-.134	.135	.875
	건강상태	-.386*	.190	.680	-.527**	.199	.590
은퇴기대	강요된 좌절			-.507*	.209	.602	
	새로운 출발			-.008	.250	.992	
	휴식으로의 전환			.287	.185	1.332	
	계 속			.549**	.192	1.732	
	상수	2.890	1.916	17.990	2.812	2.271	16.641
	-2Log우도		412.089			392.493	

*P<.05, **P<.01, ***P<.001, 기준변수: ¹⁾ 남 ²⁾ 전문관리직

시간으로 보내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새로운 출발이 재취업교육 참여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정의(2002)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보다는 여성일수록 창업 준비교육 참여가능성이 낮아지며,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창업준비교육 참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준비교육 참여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수용하기 보다는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해지기 때문이며(홍숙자, 2001), 특히 창업을 할 때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은퇴이후에 이런 모험을 감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창업세대가 예전에는 40~50대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 들어 그 연령대가 낮아져, 창업과 관련된 교육에 20,30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정영일, 2005).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이 창업교육희망이 낮았는데, 여성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고 소극적이어서 창업교육에의 참여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창업은 일반취업보다 더 전문적이고 많은 준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성창업과 달리 여성에게는 가사문제와 가계문제로 인해 창업을 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 창업교육에의 참여의사가 낮게 나타났다고 여겨진다. 직업에서는 전문관리직보다 사무직과 생산판매직일수록 창업준비교육에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관리직보

다는 사무직과 생산판매직의 사람들은 재취업욕구가 높다는 백해정(2000)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하며,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사무직과 생산직의 사람들의 은퇴시기보다 늦다는 연구(Hardy, 1980)로 미루어 보아도 조기퇴직할 가능성이 높은 사무직과 생산직의 사람들은 재취업의 욕구가 높을 것이기 때문이다.

은퇴기대를 첨가한 모형2에서는 휴식으로의 전환이 높을수록 창업준비교육 참여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으로의 전환 기대가 높은 사람들은 일에 지친 사람들로 은퇴 후에는 충분히 휴식할 시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창업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정의(2002)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에게는 은퇴이후에 긴 시간을 보다 계획적으로 보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여가 및 취미관련 교육에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홍성희 등(20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할수록 노후 건강을 염려하여 건강관리와 관련되거나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나 취미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퇴기대에서는 강요된 좌절이 높을수록 여가 및 취미관련 교육에 참여가능성이 낮았으며, 계속 기대가 높을수록 여가 및 취미관련 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기를 외부의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여 은퇴 이후 삶에 대해 상실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도 적극성이 결여되어 여가나 취미관련 교육에 참여를 덜 하기 때

<표 8> 건강관리준비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 별 ¹⁾	.971**	.320	2.641	1.014**	.332	2.755	
연 령	.038	.021	1.039	.041	.022	1.041	
교육수준	-.088	.078	.916	-.095	.080	.910	
인구학적 특성	직업 ²⁾ 사무직	-.175	.334	.839	-.095	.339	.909
	생산판매직	-.371	.421	.690	-.336	.428	.715
소 득	.009	.128	1.009	.053	.133	1.054	
건강상태	-.021	.182	.979	-.085	.187	.919	
은퇴기대	강요된 좌절			-.448*	.201	.639	
	새로운 출발			.013	.235	1.013	
	휴식으로의 전환			.326	.175	1.385	
	계 속			.171	.178	1.187	
상수	.652	1.823	1.919	.524	2.089	1.689	
-2Log우도		440.162			430.697		

*P<.05, **P<.01, ***P<.001, 기준변수: ¹⁾ 남 ²⁾ 전문관리직

<표 9> 재정관리 준비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 별 ¹⁾	.786**	.260	2.195	.765**	.265	2.149	
연 령	.074***	.019	1.076	.079***	.020	1.082	
교육수준	.052	.065	1.053	.051	.066	1.052	
인구학적 특성	직업 ²⁾ 사무직	-.198	.294	.821	-.189	.297	.828
	생산판매직	-.240	.377	.787	-.221	.381	.802
소 득	-.138	.109	.871	-.137	.111	.872	
건강상태	.073	.155	1.076	.070	.159	1.073	
은퇴기대	강요된 좌절			-.090	.170	.914	
	새로운 출발			.238	.201	1.268	
	휴식으로의 전환			.172	.148	1.188	
	계 속			-.102	.149	.903	
상수	-2.944	1.561	.053	-3.807*	1.775	.022	
-2Log우도		560.816			557.625		

*P<.05, **P<.01, ***P<.001, 기준변수: ¹⁾ 남 ²⁾ 전문관리직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계속기대가 높은 사람들은 은퇴를 특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전에 해오던 일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계속기대가 높은 사람들은 이전부터 지속해온 여가활동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 참여하고자 하기 때문에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및 소득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강희성(2002)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다수가 젊은층이 많고 대상자의 85.4%가 여가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참여를 희망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에는 고령자를 보다 많이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건강관리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남성과 비교해서 여성의 기대수명이 길며(Schulz et al., 1999), 건강문제와 장애가 여성에

<표 10> 상담관련 준비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 별 ¹⁾	.627**	.214	1.872	.581**	.217	1.787	
연 령	.018	.014	1.018	.017	.014	1.017	
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	.034	.055	1.035	.026	.055	1.026
	직업 ²⁾ 사무직	.055	.247	1.056	.045	.249	1.046
	생산판매직	.264	.320	1.302	.255	.322	1.290
	소 득	-.091	.094	.913	-.092	.095	.912
	건강상태	-.148	.135	.862	-.168	.138	.845
은퇴기대	강요된 좌절			.035	.146	1.036	
	새로운 출발			.190	.175	1.209	
	휴식으로의 전환			.093	.126	1.098	
	계 속			.080	.128	1.083	
	상수	-1.371	1.328	.254	-2.254	1.517	.105
	-2Log우도		697.481			695.159	

*P<.05, **P<.01, ***P<.001, 기준변수: ¹⁾ 남 ²⁾ 전문관리직

게 더 많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는 결과(Rosenthal & Morith, 1993)로 미루어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기대에서는 강요된 좌절이 높을수록 건강관리 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강요된 좌절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에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Hornstein & Wapner, 1994) 은퇴를 위기로 지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퇴이후에 건강관리와 같은 교육에 참여할 심리적 여유가 없고 오히려 이러한 상실감을 보상해주는 재취업 교육을 더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재정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여성은 이혼하거나 사별하여 혼자 되는 경우가 많고 경제적 자원이 적어 궁핍할 확률이 남성보다 두 배나 높아(Clark & Quinn, 1999)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재정관리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은 여성보다 은퇴 후의 경제계획을 잘 세우고 있기 때문에(Bernheim, 1998; Goldsmith & Goldsmith, 1997) 남성참여가 더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이 높을수록 재정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에 가까운 사람이 은퇴계획행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한다는 Dan(200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은퇴기의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경제준비교육에 연령이 많을수록 참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상담관련 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희성(2002)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정 관련 교육의 참여욕구가 남성은 10.2%인데 반해 여성은 20.2%로 나타나 본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홍성희 등(2006)의 연구에서 남성의 76.3%가 가족 및 대인관계관리교육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대인관계에 중요한 상담관련 교육에 남성의 참여가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은퇴기대가 상담관련교육 참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담관련 교육에의 참여빈도가 다른 교육과 달리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 상대적으로 상담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담관련준비교육 참여는 은퇴기대 유형보다는 성별이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구학적 특성 변인 중 성별을 제외하고 다른 변인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관련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은퇴기대유형보다는 성별을 고려한 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높을수록 전원생활 관련 준비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휴식으로의 전환이 높을수록 전원생활관련교육 참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중년기 이후 사람들은 유사한 취향과 능력을 겸비한 입주자끼리 친목도 모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생활을 위한 은퇴농장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Sommers & Spears, 1992),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층이 전원생활을 이유로

<표 11> 전원생활 준비교육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독립변수	모형 1			모형 2		
	B	S.E.	Exp(B)	B	S.E.	Exp(B)
성 별 ¹⁾	-.050	.224	.952	-.136	.233	.873
연 령	.037**	.016	1.038	.044**	.017	1.045
인구학적 특성						
교육수준	-.057	.059	.945	-.064	.061	.938
직업 ²⁾ 사무직	.221	.254	1.247	.211	.260	1.235
생산판매직	.122	.336	1.130	.088	.343	1.092
소 득	-.160	.099	.852	-.178	.103	.837
건강상태	.041	.142	1.042	.078	.147	1.081
은퇴기대						
강요된 좌절				-.180	.156	.835
새로운 출발				.004	.186	1.004
휴식으로의 전환				.547***	.142	1.728
계 속				-.035	.137	.966
상수	.524	1.397	1.689	-.284	1.620	.753
-2Log우도		648.847			632.755	

*P<.05, **P<.01, ***P<.001, 기준변수: ¹⁾ 남 ²⁾ 전문관리직

귀농을 한다는 김희동(1998)의 연구로 미루어 볼 때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전원생활을 고려하여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휴식으로의 전환이 높은 사람들이 전원생활에 관한 교육참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원생활관련교육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전원의 생활을 누리며 쉬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요된 좌절, 새로운 출발 및 계속기대는 전원생활관련교육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의 은퇴기대에 따라 교육욕구역시 다양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길어진 은퇴기로 인해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생의 종착지로 향하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이거나 휴식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은퇴라는 인생의 전환점에서 개인이 가진 태도와 기대는 다양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직장인들이 은퇴에 대한 다양한 기대 유형을 밝힘으로써 개인의 차이를 고려한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개발에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질 것이다. 특히, 각 집단의 중심적 요구에 맞게 개별화된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은 은퇴를 앞둔 직장인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에게도 삶의 준비를 도와주는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은퇴기대 유형은 성별, 연령, 소득 및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가지 은퇴기대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이 3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은퇴기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기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은퇴기에 개인이 처한 상황과 기대에 맞는 은퇴준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기업 및 사회단체에서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직장인의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 참여의사는 프로그램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가장 높은 참여의사를 보인 프로그램은 여가 및 취미관련 교육이었고, 다음이 건강관리교육과 재정관리교육 순이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퇴 후 생활의 변화를 잘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특히 은퇴기에 중요한 건강과 재정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은퇴기대가 은퇴준비교육 참여요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 강요된 좌절은 재취업준비교육, 여가 및 취미관련 교육, 건강관리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새로운 출발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휴식으로의 전환은 재취업교육, 창업준비교육, 전원생활교육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계속은 여가 및 취미관련교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은퇴기를 강요된 시기로 예상하는 이들에게 비자발적 퇴직에 대한 불만을 극복할 수 있게 재취업기회의 확대를 통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함양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곧 은퇴를 맞게 되는 연령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업 및 사회단체에서 재정관리 및 전원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이 은퇴준비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은퇴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인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직업을 보다 세분화하고 비정규직종사자 및 은퇴자를 포함하여 조사한다면 보다 실제적인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일 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인구학적 특성 변인으로 성별, 연령, 직업, 소득, 건강상태, 교육수준만을 살펴보았으나 은퇴기에 중요한 경제적인 측면과 여가측면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추후에 가계총자산 및 현재의 여가생활과 같은 특성도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은퇴준비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이 재취업, 창업, 여가 및 취미, 건강, 재테크, 전원생활로 수와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추후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교육내용을 포함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접수 일 : 2006년 11월 08일
- 심사 일 : 2006년 12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1월 24일

【참 고 문 헌】

- 강희성(2002). 중고령자의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육구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기영화(2000). 퇴직준비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모델의 이론적 토대, *Andragogy today*, 13(4), 17-41.
- 김경신(1996). 노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노년학연구*, 5, 51-70
- 김미혜(1993). 노년을 위한 퇴직준비교육 모형의 개발, *한국노년학*, 13(2), 15-29.
- 김신일 · 홍기형 · 강태중 · 이화정 · 변종임 · 나항진(1999). 퇴직 교원의 노후 준비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연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 김연옥(1992). 퇴직예정자의 퇴직태도 및 퇴직 후 계획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 1-26.
- 김지경(2005). 성별은퇴사유와 은퇴 후 소득비교. *사회보장연구*, 21(2), 55-76.
- 김진관(2002). 중년기 직장인의 퇴직 의식 및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주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향은(1991). 정년퇴직을 앞둔 중년 남성의 심리적 불안-퇴직예정자의 상태; 특성불안과 현행 정년제도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휘동(1998). 21세기를 향한 지역 귀농대책의 방향. 경상북도지역농정 특별세미나 논문집.
- 백해정(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은퇴결정 및 노후 재취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경희(1995). 은퇴자를 위한 퇴직전 준비교육의 활용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1995). 퇴직 후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현상과 대책. *사회복지 가을호*. 사회복지협의회.
- 윤진(2001). *성인노인심리학*, 14판, 중앙적성출판사.
- 이승아(1998). 중년기 직장남성의 퇴직에 대한 태도와 퇴직 후 생활계획.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의(2002). 교사 퇴직기대의 유형, 결정요인 및 퇴직준비 교육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주일(2003). 기업구성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준비 교육요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1), 57-79.
- 정선옥(1995). 기업체의 퇴직준비프로그램이 퇴직 후 생활 적응 예측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영일(2005).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제 14 집, 167-181.
- 지연경 · 조병은(1991). 내외통제성 및 은퇴로 인한 스트레스 지각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2), 217-240.
- 차갑부(1999). 퇴직전후 교육 프로그램 연계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37(1), 347-368.
- 최가영 · 조임현 · 이의훈(2001). 노인근로자의 퇴직 현상에 관한 심층적 연구. *한국노년학*, 21(1), 73-92.
- 최보아 · 지영숙(2004). 은퇴자의 생활설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47-61.
- 최성재(1989). 퇴직예정자의 퇴직에 대한 태도 및 퇴직 후 생활전망의 인식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 47-65.
- 통계청(2005). 2004년 사회통계조사 주요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02). 고연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정책과제: 제3차 KLI-JLI 국제워크숍 자료집*.
- 한정란(2001).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 허정무(1998). 퇴직자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 탐색을 통한 퇴직준비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한국 노년학*, 18(3), 1-18.
- 호정화(1998). 교사의 일과 은퇴에 대한 태도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성희 · 김순미 · 김혜연(2006).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생활문제 인식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95-115.
- 홍숙자(2001). *노년학 개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Antonovsky, A., Sagy, S., Adler, L. & Visel, R.(1990). Attitudes toward retirement in Israeli Cohor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1(1), 57-77.
- Bernheim, B. D.(1998). Financial illiteracy, education and retirement saving. In O. Mitchell & S. Schieber(Eds.), *Living with Defined Contribution Pensions. Remaking Responsibility for Retirement(38-68)*.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rady, E. M., Leighton, A., Fortinsky, R. & Crocker, A.(1996). Pre-retirement education Programs: Views From the Organization. Research Report Washington, D. C.
- Chung, I. S.(2004). *Factors affecting the retirement satisfaction of the Korean American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 Clark, R. L. & Quinn, J. F.(1999). *The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Medicare Brief No.4.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of Social Insurance.
- Dan, A. A.(2004). What are people doing to prepare for retirement? Structural, personal, work, and family predictors of planning.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 Ferraro, K. F. & Su, Y.(1999). Financial strain, social relations,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older people: A cross-cultur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4B, s3-s15.
- Fretz, B. R., Kluge, N. A., Ossana, S. M., Jones, S. M. & Merikangas, M. W.(1989). Intervention targets for reducing preretirement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3), 301-307.
- Gee, S. & Baillie, J.(1999). Happily ever after? An exploration of retirement expectations. *Educational Gerontology*, 25(2), 109-128.
- Glass Jr. & Conrad, J.(1998).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An imperative for baby boomer woman. *Educational Gerontology*, 24(6), 595-618.
- Goldsmith, E. & Goldsmith, R. E.(1997).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and real knowledge of financial investments. *Psychological Reports*, 80(1), 236-238.
- Hanson, K. & Wapner, S.(1994). Transition to retirement: gender differences.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9(3), 189-207.
- Hardy, A.(1980). *The Structure of Retirement: A Longitudinal Study of Socioeconomic factors That Influence The Retirement Decisions Of Older Males*, Indiana University. Phd.
- Hareven, T. K.(1995). Changing images of ag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life course. In M. Featherstone & A. Wernick(Ed.), *Images of Aging: Cultural Representations of Later Life(119-134)*. London: Routledge.
- Henretta, J. C.(1997). Changing Perspectives on Retirement.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52B, S1-S3.
- Hornstein, G. A. & Wapner, S.(1985). Modes of Experiencing and Adapting to Retirement. *International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1(4), 291-315.
- Huebbe, S. K.(1999). A gold watch: The transition experiences of recently retired Wisconsin public school teache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Kim, M. H.(1992). Retirement attitudes, preparations, conceptualizations and behavioral intentions toward retirement among first generation Korean-Americans in mid-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Martin, M. R.(1997). A descriptive analysis of managers' and non-managers' perceptions and knowledge regarding planning for retirement in one corpo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orud, R. D.(1990). Perceptions of retired public school teachers regarding retirement: implications for pre-retirement plan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Dakota.
- Rosenthal, M. & Morith, N. P.(1993). Women and long-term care planning: The adverse impact of women's perceptions. *Journal of Women and Aging*, 4(4), 67-81.

- Schulz, J. H., Rosenman, L. & Rix, S. E.(1999). International developments in social security privation: What risk to women?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4(1), 25-42.
- Sommers, A. & Spears, N.(1992). *The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N.Y.: Spinger Publishing Company.
- Staples, P. A.(1998). *Attitude retirement and lifelong career development among adolescents, young adults and mid-life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Walker, J.(1996). *Models of retirement and educational practice*. in Walker, J. *Changing concepts of retirement*. Aldershot: Arena Books.